

우리나라 古美術에 나타나는 信仰*

Lee OGG**

新羅의 美術品안에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것은 왕관이다. 이들은 대부분 金빛을 띄고 있다. 이 빛깔은 朴赫居世의 출생과 관계되는 神話에 나타나는 “異氣如電光乘地”(三國遺史 卷1. 新羅始祖 赫居世王)라든가 金於智에 관한 이야기 안의 “有櫃雲從天乘地,雲中有黃金櫃,掛於樹枝”(同上 金어智)라는 표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東西南北의 世界 어느 곳에서나 “完全한 것” “永遠한 것” 특히 “하늘의 빛”(Lumière céleste)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王權을 상징하고 또 中央을 뜻하기도 한다. 이를 말해주는 사실은 옛 기록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한 예가 北扶餘를 세운 王帝 解慕漱의 아들 扶婁가 “老無子,一日祭山川求嗣,所乘馬至 鯤淵,見大石,相對淚流,王怪之,使人轉其石,有山兒,金色蛙形,王喜曰,此乃天賚我令胤乎,乃收而 養之,名金蛙,乃其長爲太子,夫妻薨,金蛙嗣位爲王”(同上, 東扶餘)이라는 글, 그리고 後漢書(卷 85) 高句驪條에 이 나라의 五部制를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이에 대한 唐나라 高宗의 아들 章懷太子의 註에 “按今高驪五部,一曰內部,一名黃部,卽桂婁部也.”云云하는 글 등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方位에 관해 바로 앞에 인용한 章懷太子의 주가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음이 주목을 끈다. “二曰北部,一名後部,卽絕奴部也,三曰東部,一名左部,卽

奴部也,四曰南部,一名前部,卽 絕奴部也,五曰西部,一名右部,卽 消奴部也.” 이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에 대한 개념과 정반대되는 것이나, 이 논문에서 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사실은 인간이 言語를 갖게 되고, 따라서 사고를 할 수 있는 新石器 時代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四角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생각이 고구려, 신라의 건국개

* 이 글은 1994. 4. 15 ‘인문과학 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임.

:** 프랑스 파리 제7대학 교수 ·

념과 유관함은 물론이다. (이에 관해서는 예컨대 金廷鶴의 韓國文化史大系, 卷1, 한국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pp. 291. 金元龍의 韓國考古學概說, pp. 162-163등을 참조) 이는 더 나아가 네개의 방위는 각기 특별한 뜻을 象徵함을 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중요한 예로 신라에서는 屍身이 東西의 방향으로 눕혀진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시신은 없어졌다하더라도 금관이 동쪽에, 신발이 서쪽에 놓여 있었다는 天馬塚의 경우는 바로 이렇듯 생각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천마총의 경우 또하나 중요한 것은 무기가 시신의 南, 北, 西의 三方에서 발견되었는데, 동쪽에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방이 다른 방위와는 다른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동방은 두말할 것 없이 “하늘의 빛”이 솟아오르는 곳,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곳임은 물론이다. “異氣如電光乘地, 有一白馬禱拜之狀, 尋檢之, 有一紫卵一雲靑大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 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浴於東泉, 身生光彩.” (삼국유사 권1. 신라시조 혁거세왕)이 바로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바로 이런것 때문에 동쪽에는 무기를 두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신발이 놓인 위치로 보아 이는 죽은 사람이 찾아 가야하는 곳, 해가 지는 곳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고분 발굴의 성과가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達西의 고분 No. 37-1에서 금동관이 두 개나 발견되었는데, 이 물건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과 같은 무기, 마구가 놓여 있었다 한다. (조선총독부, 경상북도 달성군 달서리 고적 조사보고, 1931. pp. 59) 그러나 이는 예외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다. 따라서 西方이 죽음을 뜻한다는 생각을 간과시켜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西方의 세계, 이는 白色으로 표현된다. “玉門者女根也, 女爲陰也, 其色白, 白西方也, 故知兵在西方, 男根入於女根, 則必死矣.”라는 선덕여왕의 말이 이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에 관해 “魏略曰. 其居喪, 男女皆純白, 婦人 著布面布夜, 去環佩”(魏志 東夷傳, 권30, 부여전)라는 기사를 잇을 수 없다. 삼국사기(권13, 유리왕 29년 6월)에는 다음과 같이 있다. “矛川上有黑蛙, 與赤蛙君羊鬪, 黑蛙不勝死, 議者曰, 黑北方之色, 北扶餘 破滅之徵也.” 다시 말하면 北은 검고 南은 붉다는 말이다. 같은 책(권14, 대무신왕 3년 冬 10월)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 흥미롭다. “扶餘王帶素, 遣使送赤鳥, 一頭二身, 初扶餘人得 此鳥, 獻之王, 或曰, 鳥者黑也, 今變而爲赤, 又一頭二身, 并二國之徵也, 王其兼高句麗乎, 帶素喜送之, 兼示或者之言, 王與 臣議, 答曰, 黑者北方之色, 今變而爲南方之色, 又赤鳥端物也, 君得而無有之, 以送於我, 兩國存亡, 未可知也, 帶素聞之, 驚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동방을 상징하는 빛에 관한 기록이 안 찾아진다. 앞서 말한 바 있는 박혁거세 출생과 관계되는 紫卵에 대한 註에 一雲靑大卵이라 있어 출생과 관계가 있는 알, 東泉의 東이 청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청룡, 주작, 백호, 현무라는 四神思想에도 西方이 청색으로 상징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방위에 관한 신앙이 당초에 중국

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란, 일운, 청대란”이라는 생각이 中國 思想의 영향이란 도저히 찾아 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신라와 가야의 관을 볼 때 그 색채와 함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 중앙부에 있는 出字形의 裝飾이다. 이는 單層, 三層 또는 四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무를 상징한다거나 혹은 산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어 왔으나 이것이 왜 단층, 삼층 또는 사층으로 되어 있는가에 관해서는 이때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에 관해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朕欲定置京都. 四望山狹, 左右曰, 此地獄小如蓼葉, 然而秀異, 可爲十六羅漢住地, 何況自一成三, 自三成七, 七聖住地, 固合于是, 托土開疆, 終然允臧歟”(권2, 가락국기) 疆土를 開拓하면 좋을 것이라는 이 땅에 관한 기록에 후일 삽입된 것이 있어 여기서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은 十六羅漢이 살만한 땅이고 중국의 황제와 방명등의 칠성의 住地로 적합하다는 기록으로 가야의 설립시기 즉 西기後一세기에 중국의 信仰이 남한의 끝에 까지 전파되어 있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좌우간 “自一成三”한다함은 李奉恩교수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정신문화 연구”, No. 32. 1987. pp. 3-18에 게재된 “단군신화의 종교적 의미”를 참조할 것) “自三成七”이라 하니 이는 1=3=7이라는 사고방식을 말해주고 있다.

1은 출발점이고 전체를 뜻한다. 그리고 또 신라 신문왕이 感恩寺를 창건하기위해 東海邊에 갔을 때 본 自然現象으로 “山勢如鼉頭, 上有一竹竿, 晝爲二, 夜合一”(삼국유사, 권2, 만파식적)이라 하므로 1은 2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1=2라는 말이다.

2는 양성의 결합, 따라서 풍요함을 가르치는데 이는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것 같이 왜 자신이 머리를 둘 가진 뱀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3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乘直의 三世界 卽 天, 地, 冥을 뜻한다.

4는 인간이 살고 있는 수평의 세계를 말하는데 신라에서도 고구려나 백제에서와 같이 건국설화에는 그 땅이 원래가 “父”, “母”, “子”, “女”로 사분되었으리라 함은 “今俗中興部爲母, 長福部爲父, 臨川部爲子, 加德部爲女”라는 기사가 잘 시사해 주고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갈 때 1(=2)=3=7(=3+4)가 아닌가라는 결과를 얻는데, 이는 더 나아가 1=3+4라고 까지 말 할 수 있다. 이를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 고구려 유적인 將軍塚이다. 이는 토대가 四角인데, 이 사방에는 각각 세계의 큰 돌이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형상은 피라미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칠층으로 되어 있으며 시체는 사층과 오층 사이에 안치되어 있었다 한다. 3과 4의 사이에 자리잡고 수평의 세계를 지배하면서 乘直의 세계를 왕래하는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묻힌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여기 매장된 사람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王者라 해야 마땅 할 것이다.

3과7에 관해서는 이 두 수자가 21을 뜻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이는 사람이되려는 곱과 호랑이에 대한 “時神遺靈竟一炷蒜二十杖間,爾輩食之,不見日光百日,使得人形,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熊得女身,虎不能忌,而不得人身”(삼국유사 권1. 고조선)했다는 기록에 나타나는 수자를 해석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정이다. 그 이유는 간명하다. 단군이 나라를 세웠으리라하고 생각되는 신석기시대 후기 또는 청동기시대 초기에 사는 사람들이 곱하기를 알고 있었느냐고 반문하면 3,7일이 그 사람들에게 21로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거나와 또 하나 3,7일이 21이라는 생각은 “不見日光百日”을 해석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에 나타나는 단군관계 이야기는 일광을 하면 쑥과 마늘로 initiation을 이룩해야 하는데 이 initiation이란 3을 뜻하는 天地冥의 乘直世界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능력을 취득, 아울러 동서남북의 수평계를 지배하는 능력의 취득을 위한 일정한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百日이란 이 initiation의 완결 즉 완전함을 뜻한다. 따라서 여기서 1=100이라는 또 하나의 공식을 시사할 수 있는 것이다.

신라건국 설화에 “辰韓之地,古有六村”(삼국유사, 권1, 신라시조, 혁거세왕)이라하여 6이라는 수자가 나타나고 또 같은 수자가 가락국지(동상, 권2)에도 “唯紫繩自天乘而着地,尋繩之下,乃見幅裏金合子,開而視之,有黃金卵六,圓如日者,衆人驚喜”,이라 하여 인용되어 있는데 이것이 “國有君王,皆而又畜名官,有馬加,牛加,猪加,狗加,犬使,大使者,使者”(위지동이전, 권30, 부여전)의 6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닌가? 아직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낼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수자가 많이 인용된 기사로 삼국유사 권1이 고조에 있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古記云, 晉有桓 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貧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之爲太白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在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白山頂, 卽太白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 兩師, 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여기 나오는 수자 가운데 3을 제외하고 삼천, 삼백육십은 한국 고대인들이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뒤 건국신화를 미화하기 위해 삽입시킨 것이라 함이 필자의 생각이다. 첫째로, 庶子운운하여 북극성 즉 소용자의 별의 이름이 인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풍백, 우사, 운사라 하여 이 중국천문에 나타나는 신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적지 않은 시사를 주는 것은 환웅이 신시를 만들었는데, 단군이 따로 나라를 만들어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同上) 부자가 나라를 각기 하나 만든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같은 책에 “天帝降于訖升 骨城, 乘五龍車, 立都稱王, 國號北扶餘, 自稱名解慕漱”(同上, 북부여)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와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我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態神山下

鴨綠邊室 中私之,而往不返,”(同上, 고구려) 다시 말하면 천제가 천제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神市와 朝鮮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하늘의 아들 환웅과 단군은 우자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神話는 아직도 연구되어야 할 문제가 허다하다.